

담양군 귀농귀촌
영농교육생 모집

28일까지 선착순 45명

담양군이 귀농·귀촌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연다. 특히 교육생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 농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담양군은 귀농·귀촌자 및 희망자를 45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과정(주 1회씩 총 14회)의 '귀농귀촌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영농기술 습득, 영농현장 견학, 농기계 실습 등 기초부터 심화까지 교육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농업기술교육 이외에도 농촌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고 토착민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리더와의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농촌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현장감 있는 농업기술 교육과 실생활을 바탕으로 한 농촌생활 적응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자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성공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읍·면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61-380-3440)

/담양=정재근기자 jrg@

강진군 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 '착수'

강진읍 동성리 7755㎡

센터·장터 등 6개관 설치

강진군이 강진읍 시장 활성화와 읍상권 살리기 위한 '강진 오감누리타운'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이달내에 강진읍시장 맞은편 사업부지인 강진읍 동성리 일원 7755㎡를 대상으로 총 24동의 건축

물을 철거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한편 바닥정리 공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작업을 완료하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분진을 철저히 차단해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앴다.

오감누리 타운에 들어설 건물은 커뮤니티 센터와 먹거리 장터, 한정식 체험관 등 6개관이

며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화화합 광장과 야외무대, 야외정원 등이 들어서 방문객들을 위한 공연과 쉼터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게 된다.

한편 강진읍시장은 올해 2014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시장으로 선정돼 3개년(2014~2016)간 최대 15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게 됐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오감누리 타운' 조성사업이 지난 10일부터 사업 부지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타운에는 전문 식당가와 커뮤니티 센터, 한정식 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 위기 벼농가에 60억 지원

총 8116ha... m당 74.6원

1000㎡ 이상 2ha 이하

나주시가 농가 소득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경영안정 대책비 6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09년 제정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에 따

른 것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도비 17억원, 시비 43억원이다.

올해 경영안정 대책비 지급 대상면적은 8116ha로 ▲지급단가 m당 74.6원 ▲지원한도 면적은 1000㎡ 이상 2ha까지이다. 지원금액은 ha당 지난해 대비 4510원 인상돼 ha당 시비 52만8740원, 도비 21만7370원으로 오는 18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영암군, 청림 마일리지로 비리 척결

영암군이 관행적 비리와 불공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청림 마일리지'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청림도 향상활동 참여도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실적 ▲부서별 자체 청렴 활동 전개 ▲부패방지 청렴 아이디어 제안 실적 등을 가점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응답자 의견이

제시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 구비서류 및 절차 간소화 등을 감점 항목에 반영해 군민불편 행정행위 개선을 유도하고, 연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 내용으로 한 총 20편의 에니메이션 청렴 교육 드라마를 4~6월 말까지 방영해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와 부패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영암=대성기자 dss@



강진군-한국주방장회 MOU 강진군과 한국총주방장회(KCC)는 지난 12일 농·특산물 구매와 현장견학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CC(회장 배한철)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 국내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 모임으로 외식산업 외에도 컨설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전북

남원시 청정 오미자 생산단지 확대

전체 재배면적 47ha로 늘려 소득 향상 기대

남원시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리산 청정 오미자' 생산단지를 집중 육성한다.

남원시는 올해 34농가에 1억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ha 규모의 오미자 생산단지를 추가 조성해 전체 재배면적을 47ha로 늘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20억원의 소

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는 해발 500m이상의 고지대에서 재배되며 품질이 좋아 농가에서 높은 가격으로 생과로 판매하는데도 물량이 부족할 정도이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오미자는 껍질과 살이 달고 시며, 씨는 맵고 쓰면 씨 따 모두 다섯가지 맛이 난다. 특

히 만성기관지 확장증 환자의 기침과 천식에 매우 잘 들고, 공기가 탁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침, 가래 증상에 효과적으로 폐를 돕는 효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해 고소득 작물인 오미자 생산단지 재배면적을 1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시름 깊은 봄감자 캐기

김제시 광활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농부들이 봄감자를 캐고 있다. 올해는 지난 겨울의 가뭄과 병해로 생산량이 30%가량 감소한 데다 가격도 내려가 농가의 시름이 깊다.

/연습스



정읍교육청, 초등 영재 리더십 교육

정읍교육지원청은 최근 1박2일간 김제 청소년 농업생명체험 센터에서 정읍 영재교육원 초등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리더십 교육과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리더의 자질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차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째날에는 영재 학생들의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을 충족하기 위해 '생명과 미래'라는 주제로 LED 식물공장과 접목로봇, 바이오디젤, 종자은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둘째날에 학생들은 미래형 트랙터

와 농업용 헬리콥터 모형을 직접 운전하며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뮬레이션 체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김제 아리랑 문화관을 방문해 김제 평야를 소재로 쓴 작곡가의 장편 소설 '아리랑'의 집필 배경과 가슴 아픈 수탈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논술반 강가희(정읍 동초 5년) 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매우 흥미롭고 즐거웠다. 특히 현미경으로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부분을 관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풍당보리 축제 내달 2일 개막

군산의 대표적 농업축제인 '제9회 군산 풍당보리 축제'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군산시 미성동 주민센터 앞 정보리밭에서 열린다.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NH농협이 후원하고 풍당보리축제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한살보리를 전국에 알리려고 마련됐다.

축제는 '오월 청보리밭, 왁자지껄

추여여행'을 주제로 가족단위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획됐다.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도자기 체험, 당나귀·말타기 체험, 풍당보리 토퍼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지난해 축제에는 15만 7000여 명이 행사장을 다녀갔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정읍무공수훈자회 호국영령 전공비 제막식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정읍시지회(회장 변운은)는 지난 11일 정읍시 부전동 문화광장에서 전공비 제막식을 가졌다.

전공비는 부지 27.6㎡에 높이 5.4m, 폭 3.5m 크기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쳐 싸운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됐다.

변운은 정읍시지회장은 "후손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조국의 소중함과 함께 반공정신을 드높이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심과 애국정신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상징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광한루원서 각종 환영이벤트 진행

남원시 시설사업소는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한다. 시설사업소는 행운의 입장객 환영 이벤트를 시작으로 춘향-이도령 마스코트운행, 무료 가훈 써주기, 신관사포 부임행사, 전통혼례, 포토존 운영, 민속체험 놀이 등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 행사를 연다. 환영이벤트는 광한루원 입장객 가운데 20, 30, 50, 90, 1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꽃다발, 기념품 등을 증정한다.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운영은 다음달 11일부터 6월말 까지 주말을 이용해 15회에 걸쳐 기념촬영 등을 제공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서 전국 대학생 유도선수권 대회 개막

제64회 춘계 전국 대학 남녀 단체 유도대회 겸 제36회 전국 대학생 남녀 체급별 개인 유도선수권대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순창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한국대학유도연맹(회장 정수범) 주최, 전북도유도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남녀 모두 7개 체급

에 350명이 참가해 열린 경기를 벌인다.

황숙주 군수는 "5년째 순창에서 열리는 유도 대회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전국 유도인들에게 순창을 깨끗하고 점이 넘치는 고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부안면, 철쭉 등 꽃길 조성

고창군 부안면(면장 김공례)은 14일 직원과 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면 소재지 도로변에 꽃박스를 설치했다.

또한 소재지부터 오산마을까지 도로변 공터에 '아름다운 부안사랑' 꽃동산을 조성했고, 철쭉을 식재해 민과 방문객에게 생동감 있는 봄철

불거리를 제공했다. 김공례 부안면장은 "관광객들이 도로에 핀 꽃을 보며 위안을 얻고, 주민들이 꽃을 가꾸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웠으면 한다"며 "도로변 공터를 활용해 계절에 적합한 꽃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